

진짜사장·진짜교섭

노조법 시행령 폐기!
원청 단체협약 쟁취!
금속 산별교섭 완성!
노동자 단결과 연대!

현대제철비정규직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 현대모비스 아산 천안 서산 아산물류 비엠아이

금속노조 힘으로 원청교섭 뚫는다 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1차 대표자 회의 열려

2월 11일 금속노조 14기 첫번째 <원청교섭 투쟁본부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2026년 원청교섭 투쟁에 돌입한 26개 지회의 현장대표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충남지부 8개 지회장 동지들도 모두 참여하여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날 회의는 실제로 원청교섭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매뉴얼) 등이 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기본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절차를 규정하는 만큼, 원청교섭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의 유풃리를 따지거나 제도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절대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원청교섭을 뚫는 길은 현장의 파업 투쟁입니다.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권리를 싸워 얻는다는 관점을 갖아야 합니다.

최근 일부 원청 사용자나 정치권에서 산업안전보건 의제'만'으로, 단체교섭이 아닌 '협의체'를 진행하자는 중재안(?)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교섭 요구안은 노조가 결정하며, 교섭자리에서 노사가 논의합니다. 실효성도 없고 정체도 모를 협의체 따위가 아니라 '단체교섭'을 해야 합니다.

충남지부 투쟁본부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파업투쟁을 준비합니다. 사업장 각개격파로는 불가능합니다. 3월 10일 전후로 더 많은 동지들이 원청교섭 투쟁 대오에 합류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속노조 방침과 계획에 발 맞춰 크고 넓게 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거통고-웰리브 동지들에게 연대와 응원의 힘을

한화오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가입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공동으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에게 어제(2/12) 단체교섭 상건례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올해 첫 원청교섭 상건례를 시작하는 동지들입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상건례에 불참했습니다. 작년에는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회피했습니다. 거통고지회는 작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판정으로 한화오션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두 지회는 3월 10일 법 시행전에 한화오션과 단체교섭을 연다는 계획이며, 2월 24일 다시 교섭을 진행할 것입니다. 경남지부는 교섭불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오션이 계속 교섭을 거부할 시 투쟁돌입을 예고하였습니다. 조선하청 동지들은 맨 앞에서 오랫동안 끈질기게 원청 자본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입니다. 충남지부 동지들도 함께 연대하고 함께 이기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